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4/12/17

2014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올해는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 대회가 열렸고, 메이저리그, 분데스리가, LPGA 등 해외 스포츠 무대로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피겨 여왕’ 김연아, ‘영원한 캡틴’ 박지성 두 선수가 현역에서 은퇴해 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은 2005년부터 매년 말 그 해를 빛낸 각 분야의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3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영화배우, 코미디언/개그맨에 이어 오늘은 스포츠선수를, 이후 대중가수/인기가요, 탤런트 등 ‘2014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4년 10월 29일~11월 25일(4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3명
5. 표본오차: $\pm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 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 2 위는 ‘피겨 여왕’ 김연아
- 최고 스포츠 스타 김연아-박지성 은퇴 후 뒤이을 주자, 손연재-류현진-손흥민?
- 남성은 손연재-김연아보다 류현진, 여성은 류현진보다 박태환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 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 2 위는 '피겨 여왕' 김연아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한국갤럽의 42.0%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손연재는 지난 런던올림픽에서도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성적(개인종합 5위)을 거둬 '2012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1위에 올랐고, 이후 꾸준한 기량 향상을 보이며 작년에도 류현진-김연아에 이어 '올해의 선수'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직전 조사에서는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꼽혔고, 실제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해 기대에 부응했다.

2위는 올해 초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 무대로 현역 은퇴한 '피겨 여왕' **김연아**(33.3%)다. 이번 소치 대회에서는 김연아가 26년 만에 여자 피겨 싱글 2연패를 달성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편파 판정 논란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인의 탄식을 자아냈다. 그러나 김연아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여자 싱글 부문 4대 국제 대회 그랜드슬램을 사상 최초로 달성한 역대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그 명성은 오랫동안 빛날 것이다.

3위는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9.1%)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14승을 올리며 팀 내 입지를 다졌다. 그는 박찬호, 김병현 등과는 달리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선수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로도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데뷔 첫 해인 작년에는 '올해의 선수' 1위를 기록했다.

'마린보이' **박태환**(24.5%)이 작년 6위에서 4위로 올랐다. 그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금메달 획득과 세 차례 아시안게임을 통해 최다 메달(20개) 기록 경신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기록을 남긴 선수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올해의 선수' 3위권에 계속 포함됐고 2010년에는 1위에 오른 바 있다. 그리고 그의 레이스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5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미래를 책임질 간판 공격수 **손흥민**(12.9%)으로, 작년 8위에서 세 계단 상승했다. 현재 독일 TSV 바이엘 04 레버쿠젠 소속으로 뛰고 있는 그는 올해 브라질 월드컵 개막 전 조사에서는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폐막 후 조사에서는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로도 꼽혔다.

6위는 2014년 부상-슬럼프-수술-재활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 '추추트레인' **추신수**(5.5%)다. 그는 작년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의 강타자로 등극해 시즌을 마치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거액의 FA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최악의 성적으로 미국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팬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듯하다.

7위는 일본 프로야구 챔피언 소프트뱅크의 4번 타자 **이대호**(3.7%), 8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 시티 소속 미드필더 **기성용**(3.1%), 9위는 ‘빙속 여제’ **이상화**(2.8%), 10위는 데뷔 20년을 맞은 삼성 라이온즈의 ‘국민 타자’ **이승엽**(2.7%),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골프 여제’ **박인비**(1.8%)가 11위에 올랐다.

▶ 2014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종목	소속팀
1위	손연재	42.0	리듬체조	-
2위	김연아	33.3	피겨스케이팅	-
3위	류현진	29.1	야구	LA 다저스
4위	박태환	24.5	수영	-
5위	손흥민	12.9	축구	바이엘 04 레버쿠젠
6위	추신수	5.5	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7위	이대호	3.7	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8위	기성용	3.1	축구	스완지 시티
9위	이상화	2.8	스피드스케이팅	-
10위	이승엽	2.7	야구	삼성 라이온즈

질문)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최고 스포츠 스타 김연아-박지성 은퇴 후 뒤이을 주자, 손연재-류현진-손흥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연아-박지성-박태환이 자리만 바뀌가며 ‘올해의 선수’ 1-3위를 독식했고, 특히 김연아는 최근 8년간 모두 5위권에 들었다.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최고 스포츠 스타 김연아와 박지성이 은퇴한 빈자리를 채울 주자는 과연 누구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 최근 8년간 추이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김연아(52.0)	김연아(56.1)	김연아(82.8)	박태환(61.6)
2위	박태환(45.4)	박태환(55.4)	박지성(40.7)	김연아(50.0)
3위	박지성(28.8)	박지성(23.9)	박태환(14.5)	박지성(35.6)
4위	이승엽(11.8)	장미란(21.8)	추신수(10.9)	추신수(16.2)
5위	최경주 (5.2)	이승엽(11.5)	박찬호 (9.6)	장미란 (7.7)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위	박지성(57.6)	손연재(37.6)	류현진(51.4)	손연재(42.0)
2위	김연아(55.9)	박태환(29.1)	김연아(35.2)	김연아(33.3)
3위	박태환(26.0)	박지성(23.7)	손연재(24.9)	류현진(29.1)
4위	이대호 (6.5)	김연아(23.0)	박지성(18.8)	박태환(24.5)
5위	박주영 (5.4)	양학선(16.3)	추신수(17.0)	손흥민(12.9)

남성은 손연재-김연아보다 류현진, 여성은 류현진보다 박태환

여성이 꼽은 ‘올해의 선수’ 1위는 손연재, 2위는 김연아로 전체 순서와 동일하지만 3위는 류현진이 아닌 박태환이며, 남성이 꼽은 1위는 손연재-김연아가 아닌 류현진으로 성별 차이가 있었다.

손흥민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2014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손연재	(2위) 김연아	(3위) 류현진	(4위) 박태환	(5위) 손흥민	(6위) 추신수	(7위) 이대호	(8위) 기성용	(9위) 이상화	(10위) 이승엽
전체	1,703	42.0	33.3	29.1	24.5	12.9	5.5	3.7	3.1	2.8	2.7
성 남	848	34	27	<u>37</u>	21	<u>17</u>	6	5	2	3	3
별 여	855	<u>50</u>	<u>40</u>	21	28	8	5	3	4	3	2
연 13~18세	149	<u>51</u>	31	20	29	17	3	4	4	1	2
령 19~29세	276	36	33	35	25	<u>20</u>	5	5	4	3	1
별 30대	301	44	28	32	23	17	8	3	4	2	3
40대	338	47	32	30	24	11	6	2	3	2	4
50대	306	39	35	30	25	11	4	5	2	<u>5</u>	2
60세이상	334	38	39	23	24	6	6	4	1	4	4
남성 13~18세	78	45	23	30	24	<u>21</u>	3	2	<u>5</u>	1	2
19~29세	145	28	30	<u>40</u>	22	<u>22</u>	6	6	2	3	1
30대	154	35	21	<u>42</u>	18	<u>22</u>	<u>9</u>	4	4	3	2
40대	172	40	28	36	20	17	<u>9</u>	1	1	1	4
50대	154	29	30	38	20	13	5	<u>7</u>	1	<u>6</u>	2
60세이상	146	31	28	33	21	12	5	<u>7</u>	1	3	<u>6</u>
여성 13~18세	72	58	40	10	34	13	2	6	3	2	1
19~29세	131	45	37	29	27	18	4	4	<u>6</u>	3	1
30대	147	54	35	21	29	12	7	1	<u>5</u>	1	4
40대	166	55	37	24	29	4	3	3	<u>6</u>	3	3
50대	152	48	40	23	29	9	4	2	4	4	2
60세이상	188	44	47	16	26	1	6	2	2	4	3

질문)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